로컬에듀 실현을 위한

고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출범

전국 최초,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방과후학교 · 돌봄교실 위탁받아 운영

로컬에듀 실현을 위한 고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출범식이 26일 오후 7시 30분부터 완주군 고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렸다.

고산 풀뿌리교육지원센터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지원하고 마을의 교육력을 회복하고자 지역 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여기에 참여한 운영진과 함께 모든 강사는 지역의 주민과 학부모, 어른들로 구성되어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워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센터는 고산면에 위치한 고산초, 삼우초, 고산중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을 전면 위탁받아 운영하고 고산고는 진로교육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에 선택적으로 참여한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고용과 토요 방과후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는 지역사회가 방과후 및 돌봄, 직업체험, 학부모교육 등을 전담하고 학교는 교육과정과 수업, 생활교육에 매진하면 학교와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지역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핵가족화 되어가고 갈수록 해체되어가는 가정의 기능을 마을이 보완할 수 있다. 나아가 마을의 공동체성을 살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박숙자 완주교육장은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마을과 학교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모델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라고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로컬에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정해은기자

새로운 출발 다짐 지난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모님과 함께하는 새내기 공무원 새출발 다짐행사'에 송하진 도지사가 새내기 공무원과 가족, 해당 부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1 · 2 진로진학 상담부스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이 고1 ·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진로진학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전북대입진학지도지원단의 상담교사 38명과 고등학생 36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도교육청,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지역에서 고1,2학년 학생들의 대입 목표 설정을 돕고 단계적 준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도내 고교 1,2학년 학생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360명이 참여하며 2인 1조로 구성된 상담교사들로부터 30분씩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게 됐다.

학생들은 이번 상담을 통해 대학과 학과 선택, 이에 따른 성적 준비, 합격 전략 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10월에 2차 진로진학상담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 '최다'

전국 가장 많은 9명 합격… 아프리카 대학원생 선발 초청 · 지원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17 GKS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선발' 대학 추천 전형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9명의 합격자를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 선발사업은 세계 우수 인재를 초청,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학을 통해 국제적 친한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인재 양성에 노력하는 대표적 국제장학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아프리카의 대학원생들을 선발, 항공료 전액과 연수기간 동안의 숙식비, 보험료 등을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전북대가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LED-농생명융합기술센터 등 최첨단 농업 연구소와 산업체 등 관계 기관을 체험하고 한옥마을 방문 등 한국 문화 · 역사 체험의 기회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국제교육원이 실시하0환으로 2015년과 16년 아세안국가 우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 연수를 실시한 전북대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대학생을 초청해 오는 7월과 8월 5주 간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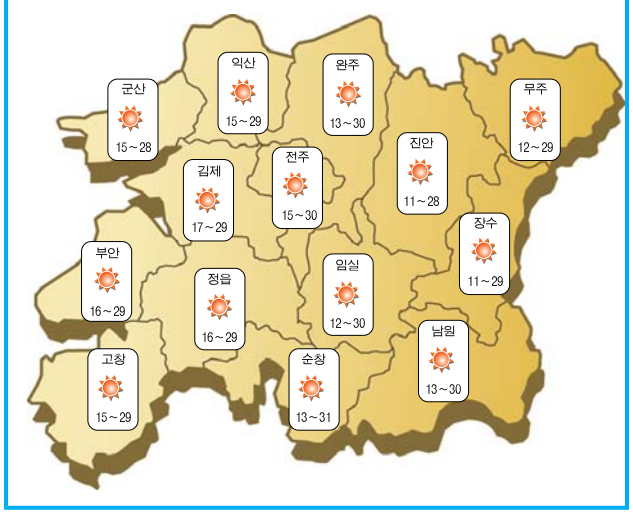
윤명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은 "전북대의 우수한 학술 · 연구 능력과 전국 최고 수준의 유학생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입학, 관리, 취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학원생들이 한국의 학문 분야 발전상을 체험하고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5월 29일 월요일 해뜸 05:15 | 해짐 19:40 달뜸 22:47 | 달짐 10:39

날씨 최저기온 11~18도 최고기온 27~31도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 이전 개원식 연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오는 30일 익산시 부송동에 새 보금자리를 틀고 신축, 이전 개원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 각급 학교장 및 학생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과학교육원 신축 · 이전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축사, 홍보영상 상영, 증강현실(AR)콘텐츠 특별체험전,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5월 착공을 시작한 전북과학교육원은 총 사업비 442억원, 부지 3만2752㎡, 연건평 1만4547㎡(지상 4층, 지하 1층)의 교육연수관 및 전시체험관을 갖춰 2016년 11월 11일에 준공되었다.

올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교육연수관은 물리 · 화학 · 생명과학 · 지구과학의 4개의 첨단과학실험실과 3개의 발명실, 전북수학체험센터, 영재교육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과학실험실은 전자현미경, MBL, 항온배양기, 초고속원심분리기 등을 갖추고 도내 학생과 교사에게 다양한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하고 있다.

이번 개원식과 함께 개관하는 전시체험관은 유아과학관, 전통과학관, 로보누리, 에너지관, 4D체험관, 천문우주관 등 10개의 체험관에 95종의 전시체험물을 갖추고 기초과학의 원리와 첨단기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관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전북과학교육원은 지난 4월 '레고로봇 특별전'을 시작으로 30일 개원식을 맞아 '증강현실(AR) 콘텐츠체험전'을 개최하며 앞으로도 보다 폭넓고 다양한 주제의 과학문화체험전을 비롯하여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발명교실, 전북도민을 위한 다양한 천체관측 프로그램으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해은기자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13교 확정

전라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지정학교 13교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교장공모제 학교는 초등학교 11교, 고등학교 2교다.

공모유형별로는 초빙형 7교, 내부형 5교, 개방형 1교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학교 7교, 자율학교 5교, 마이스터고 1교다.

이들 학교는 29일부터 학교 홈페이지게 공고문을 게시하고 교장공모를 진행하게 된다.

초빙형과 내부형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고 개방형은 교장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에 교장공모 지정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계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6일 오전 10시부터 도교육청 8층 대회의실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정해은기자